

The Future _ Real Power VII

분주하고 쫓기는 마음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후회만 남습니다.

1. 결정

신앙은 '결정'의 싸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은 주어진 약속에 대한 '반응'이다. 내 상태와 능력의 어둠이 아니다. 신앙의 성장은 '망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아가서의 신부를 잘 알 것이다. '일어나 가자'라는 신랑의 초청에 망설임이다. 그 후 신랑의 부재를 경험한 신부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신랑의 초청이 아니라, 신랑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초청에서는 망설임이 없다. 신랑이 가는 곳 어디든 가겠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망설이지 않게 된다. 망설이는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하는데 '깊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깊은 신뢰란 '전적인 의탁'을 말한다. 베드로가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뛰어든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물을 내린 이유도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성품과 성격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향한 중심의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이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때 판단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신뢰해서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이며, 다른 말로 '연합과 하나됨'이다. 내 자아가 아니다. 예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그분의 귀가 나의 귀가 되고, 그분의 입, 손, 발이 나의 입과 손, 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결정'이다. 나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이다.

2. 사울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인간의 욕망적 자아를 말한다. 사울 왕은 지도자이다. 다시 말하면 '결정'하는 사람이다. 사울 왕의 결정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된다. 왕의 자리는 그래서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왕'의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다. 왕이 가진 능력보다 왕에게 있는 마음의 성품이 중요하다. 아무리 능력 있는 왕이더라도 마음이 약하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된다. 오늘 사울 왕의 실패의 요인은 분명하다. '욕망, 즉 욕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이었다. 결국 자기 결정이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

(1) 블레셋과의 전쟁

[사무엘상 13:5, 8-9] 5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며 마병이 육천 명이며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므마스에 진 치매 8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상 13:12-14]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ㄱ) 8절 - 사울 즉위 2년만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다. 그가 왕으로 맞이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블레셋의 수가 병거만 삼만이며, 마병이 육천이며,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ㄴ) 9절 -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왕과 제사장의 사역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제사장이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다.

ㄷ) 12절 - 사울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말한다. 언제나 잘못된 결정에는 납득이 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볼 때 합리적 기준이 분명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는 부득이한 합리적 이유를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이 중요하고, 자기 이유가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성이다. 죄의 속성은 언제나 현실을 부정한다. 하와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다. 모두 상황 탓이고, 남의 탓이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어쩔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다.

ㄹ) 13절 - 사울의 합리적 부득이한 결정에 대해 사무엘은 명확하게 말한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즉, 왕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며,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준다.

ㄱ) 14절 -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왕은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며,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왕이기 때문이다. 오늘 사울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여호와와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은 똑똑한 왕, 능력있는 왕, 전략있는 왕이 아니다. '여호와와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결국 사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그렇게 되니 불안하다. 두렵다. 쫓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2) 아말렉과의 전쟁

[사무엘상 15:9, 15, 17]

9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5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7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ㄱ) 17절 -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 결국 사울의 잘못된 결정의 원인은 '교만'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의 원인이 '교만'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사무엘상 15: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ㄴ) 21절 - 사울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인가? 내가 한 일에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한다. 내가 심판자이다. 내가 판단자이다. 그래서 내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의 잘못된 결정은 하나님이 없는 육의 결정, 사탄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

[사무엘상 15:22-24] 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ㄷ) 22절 - 사무엘의 진단은 분명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사울의 잘못된 결정의 원인은 불순종이다.

ㄹ) 23절 - 불순종의 죄는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중대한 죄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ㄱ) 24절 - 사울 스스로 고백한다.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원인은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 생긴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무서웠다'라고 고백한다. 사울은 나중에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결국 무당 찾아가다.

3. 결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울처럼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잘못된 결정이 반복되는 원인은 사울의 원인과 같다. 두려움이 가득하다. 분주하다. 쫓기는 마음이다. 그 마음안에 평강이 깨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결정이 중요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시즌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깊은 친밀감이 요구된다. 잘못된 결정을 벗어나는 신앙의 태도가 있다.

(1) **멈춤** - 항상 나의 시선이 위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멈추어야 한다. 정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렬되고 가는 것이 나중에 훨씬 빠르다. 분산된 마음을 모아야 한다. 안식이 필요하다. 쉼, 충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엎드려야 한다. 엎드리기 위해 멈추라. 겸손의 마음이 결국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태도이다.

(2) **평강을 구하라** -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신다. 구해야 한다.

(3) **믿음이 필요하다** - 내가 축복의 통로임을 선포하라. 믿음은 확신이다. 불안하고 두려워 쫓기는 마음은 확신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선포해야 한다. 복을 선포하라. 그 믿음이 내 마음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분주함과 쫓기는 마음을 환기시켜 줄 것이다. 복을 선포하라. 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돌아가지 않는다. 힘을 낭비하고 소비하지 않는다.